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운섭 의원

“현장점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

조운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2월10일 열린 제2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강북구 차원에서 현장점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6일 이후 중국 우한 입국자 중 수십명이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까지 강북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강북구 내 직능단체나 유관, 민간단체 모임을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하고 있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힌 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중인 점



을 들어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내 소재한 기관이라면 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현장점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줄며 강북구 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음식점, 숙박업소를 비롯해 목욕탕, 전통시장 등 주민들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 의원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비싼 가격에도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북일보 4면

기관의 현장점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 당부

조운섭 의원

자유한국당/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운섭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제한적이라던 정부는 지난 6일 기준 입장을 바꿔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강북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면서 수유역 인근에 있는 한국 마사회 강북지사 입·출입하는 고객은 대부분이 강북구 주민이므로 지도감독이



나 협조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점검 차 방문해 본 결과 10명 중 7~8명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 중이었다면서 혹시라도 감염자가 방문할 경우 강북주민들이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강북구 차원에서 강북구 내 소재한 기관이라면 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현

장점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북구 경제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줄어 강북구 경제가 어렵다면 음식점, 숙박업소를 비롯해 목욕탕, 전통시장 등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만큼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손소독제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비싼 가격에도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강북주민들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5분 자유발언〉

마사회강북지사 현장점검 강화해야

조운섭 의원, “이용객 중 마스크 착용 드물어”



▲ 조운섭 강북구의원

조운섭 강북구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북구에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강북구 내 소재한 기관이라면 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강북구청이 직접 현장점검을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더욱 세심한 방역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직접 확인한 결과 마사회를 찾는 10명 중 7~8명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설

을 이용 중이었다”면서, “혹시라도 감염자가 방문할 경우 강북주민들이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북구의 확실한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워진 강북구의 경제도 걱정했다.

조 의원은 “주민들의 이동이 줄며 강북구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음식점, 숙박업소를 비롯해 목욕탕, 전통시장 등 사람들이 많

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비싼 가격에도 구민들은 구하기 어렵다”면서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강북구민들에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북구의회 조운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은?’



지난 10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운섭(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강북구 대책 마련’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운섭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국·우한에서 입국한 사람 중 수십명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역망에서 벗어난 감염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면서 아직까지 강북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 없기에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먼저 “강북구 내 직능단체나 유관단체, 또 민간에서도 모임을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하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보인다”면서 수유역 인근의

한국 마사회 강북지사에 입출입하는 고객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지도감독이나 협조요청을 했는지 물었다.

조운섭 의원은 “본의원이 점검 차 방문해 본 결과 10명 중 7~8명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 중이었다. 혹시라도 감염자가 방문할 경우 강북주민들이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강북구 내 소재한 기관이라면 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현장점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줄며 강북구 경제가 어렵다. 음식점, 숙박업소를 비롯해 목욕탕, 전통시장 등 주민들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북구 경제문제를 위한 대책도 마련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비싼 가격에도 구하기 어렵다”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강북구의회 조운섭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 강조



강북구의회 조운섭 의원(수유1동, 우아동, 인수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2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강북구 차원에서 현장점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조운섭 의원은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국내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6일 이후 중국 우한 입국자 중 수신편이 여전히 소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강북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운섭 의원은 “강북구 내 직능단체나 유관 민간단체 모임을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하고 있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중인 점을 들어가며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내 소재한 기관이라면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현장점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어 조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불안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줄며 강북구 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음식점, 숙박업소를 비롯해 목욕탕, 전통시장 등 주민들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운섭 의원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비싼 가격에도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